

성령체험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몰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목사님이 주는 몰로 하는 침례나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고, 전에 뜻뜻미지근했던 신앙 생활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은 것은 바로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사도행전 19:2) 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므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 하니라.” (사도행전 19:2-6)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성령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로 회개의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방언으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마가복음 16:17-18)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방언으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죽을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거나,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모르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이상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12)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방언조차도 못하고 열정조차도 없다면 결코 거듭난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욱이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5)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까짓 거 안 받고 교회만 가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뜻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안 믿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자신의 간증을 전하여 간절히 믿어보라고 증거 하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로서 이전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삶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제 맘대로 살았고, 교회는 사교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교회를 열정적으로 다니게 되었고, 세상 친구와 가족들에게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 가는 곳을 따라하고, 따라가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그들과 가는 길이 달라서 다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성령을 받은 증거는 확실합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사들이 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불같은 열정을 가져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되어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 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듭남을 달라고 간절히, 매일,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13)

물과 성령과 불, 세 가지의 세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마태복음 3:11)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고, 기도는 5초 정도만 하는 뜻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성령의 불을 2번이나 받은 이후 뜨겁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누가복음 12:49)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령의 불을 2번씩이나 받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얼마나 저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힘써 주님을 알려고 하였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제 삶에 어떤 커다란 변화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회개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세례는 그 이 후에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사도행전 2:3) 라는 실제적인 성령의 불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임했습니다. 저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낌상 체험했으나 그 당시 저는 담배 중독이었고, 방언도 하루에 5분 정도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서 제 온 몸을 타오르게 하는 불이 임하였고, 찬양할 때 성령의 불비가

3-4분정도 계속해서 내리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입이 마르던, 피가 나던, 입이 아프던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방언기도를 하였고, 금식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가장 많이 기도해본 것이 하루에 3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난 가장 안할 때가 그 정돈데...' 하며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 분이 저 정도로만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혼자 경악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나의 열심과 열정을 남과 비교했지만, 그때의 열정만은 제 모든 것을 팔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로든지 떠나려고 했으며,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열심히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께 묻겠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항상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를 매일 열심히 하시고 전도에 온 힘을 쓰십니까? 매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하기를 힘쓰십니까? 구제에 힘쓰십니까? 여기에서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면 죄송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열정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4)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옛날에 좀 열정이 있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첫째 계명인 주님을 온 마음과 온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위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꼭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기 바랍니다. 사는 것은 한 번뿐이요, 그 후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 즉 우리 각자가 심판대에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각자 잘못된 모든 것, 생각한 것,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27)

성령과 불로 거듭나려면 매일 깊이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을 깊이 회개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기다려야 합니다. 불이 꺼졌거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거나 마음이 굳어져 첫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달라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더디 주시는 것 같은데 응답이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정을 부으십시오. 꼭 주님께서는 행한 만큼 보답하십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것 없이, 주위에 있는 고아원과 양로원,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과 성령으로 안아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고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놀 것은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화해줄 수 있는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들과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나중에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 때에는 사랑을 행했으면 양으로 취급받아 천국에 가고, 사랑을 행하지 않았으면 염소로 취급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니(마태복음 25:33-46) 꼭 명심하고 작은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몸이 아프거나 쇠약한 분들은 고아들과 과부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면 됩니다. 돈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도 됩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서슴지 말고 도와주어서 하늘나라에 귀중한 상을 쌓기 바랍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럴 능력과 힘이 없는 분들은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도 됩니다. 매일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을 붙잡고 기도해주시시오. 또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도록 중보기도해 주고, 교도소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구나, 노인들과 불쌍한 자들의 평온과 우리 모두가 죄를 떠나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기도해주는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매일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여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해주시시오!” 조용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